광남일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로 오세요" GICON, 콘텐츠기업 대상 팸투어 행사 7

함평, 중국 청두시 피두구와 국제협력 나비대축제·나비촌 유채꽃 축제 등 논의 8

강진원 강진군수, 지역 교육 현안 추진 총력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등 제안 10

광주여대 오예진, 대학실업양궁 '금빛 시위' 70m 더블라운드서 676점으로 1위 12

조간 제791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음력 7월 10일)

내년 국비 '역대 최대'…광주 3조6616억·전남 9조4188억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사진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 브리핑룸에서 '2026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시·전남도

전년보다 3372억·5260억 증액…지역 현안사업 대거 반영

시, AI 등 미래산업 담겨…도, 호남고속철 2단계 등 포함

정부 내년 예산안 8.1% 늘어난 728조원 편성 '확장 재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616억원·9조4188억원의 국비를 각각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기사 3면

인공지능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미래산업과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업 국비 광주 3조6616억원, 전남 9조4188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광주는 전년도 정부예산안 3조3244억원보다 3372억원(10.1%), 전남은 5260억원(6%)이 각각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먼저 광주는 미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240억원),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10억원),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2억원)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

문화 분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건립(5억원), 역사박물관 건립(10억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1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55억원) 등 굵직한 사업이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1665억원, 전년 대비 267억원 증액), 호남고속도로 확장(238억원), 경전선 전철화(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668억원) 등이 확보됐다.

또 마륵동 탄약고 이전(15억원),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7억원) 등 교통·안전 분야 사업과 함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17억원), 전남대 스마트병원 신축(1억원), 이상기후 대응 하수도 사업(636억원), 운전면허시험장 조성(64억원) 등 복지·환경 예산도 반영됐다.

전남은 광주 송정~전남 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1632억원),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기본 계획 수립(5억원), 광주 송정~전남 순천 경전선 전철화(1672억원) 등 예산이 반영됐다.

무안·여수공항 시설개선 공사비 96억원도 반영돼 대형 참사가 발행했던 무안공항은 조류탐지 레이더와 활주로 정비를 추진해 공항 위상을 재정립하고, 여수공항은 활주로 착륙대와 종단 안전 구역을 확장한다.

신규 사업 예산은 49건, 2724억원(총사업비 5조5594억원)에 달해 미래 성장동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설계비(35억원), K-디즈니 애니·웹툰 인재 양성 거점 기관 조성(3억원),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10억원),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4억원) 등 예산 반영으로 관련 사업도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 송정~전남 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998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50억원), 국도 77호선 연결(988억원) 등을 증액 요구 대상 사업으로 제시했다.

전남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초 3000억원 이상을 증액해 내년 국비 9조7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힘쓸 예정이다.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10억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용역비(5억원)도 반영해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해 추가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7년까지 공동주택 2만5000호 공급

광주 1만3711호·전남 1만1699호…4461호 올해 입주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2만5000여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최근 공동으로 생산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발표했다.

이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협업해 생산한 정보로,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향후 2년간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추정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는 향후 2년간 1만3711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는데 올해 하반기 869호를 시작으로 내년 1만1160호, 2027년 상반기 1682호다.

전남은 1만1699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도별로는 올해 하반기 3592호, 내년 4451호, 2027년 상반기 3656호다.

전국적으로는 43만2736호가 집주인을 기다린다. 올해 하반기 12만3743호, 내년 20만6923호, 2027년 상반기 10만2070호다.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의 53.8%는 수도권(서울 5만8284호, 경기 14만133호, 인천 3만4576호)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2만8410호(6418호, 9947호, 1만2045호)로 가장 많다.

이번 정보는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등을 활용해 추정됐다.

다만, 개별 단지들의 입주일정 변경이나 후분양 등 일부 단지에 대한 추가로 추정치는 향후 변동될 수도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추석 선물은 남도장터서 준비하세요"

최대 50% 할인…10월 10일까지 농수축산물 1000여종

전남도 대표 공공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추석을 앞두고 전남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추석 명절 기획전'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210개 입점업체가 참여해 1000여종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고객 1인당 5매, 최대 2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지급되며, 20개 이상 대량 구매 시에는 한도 제한 없이 10%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 꾸러미 세트를 처음으로 마련해 제수용·구이용 등 실속 있는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명절 준비를 돕는다.

주요 품목은 한우 선물세트, 전통 한과, 굴비·김·건어물, 사과·배 등 추석 인기 선물세트가 중심이다.

남도장터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기 ▶11면